(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1. 등록번호 다~12) 제853호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해방의 방향

학생논단

임서연 <영문·2>

여성운동은 총체적 인간해방의 길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의 논리와 경제적 의존성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여성들의 민주적 의지가 여성 해방의 논리와 접목될때 비로소…

Ⅰ. 머리말

「여성해방」이라는 단어만큼 반발, 냉소, 예찬, 변호 등 거센 찬반양론의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해방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 인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체제변혁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진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여성해방운동은 단지 그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 산적해있는 식민지국가의 민족해방, 공해, 복지, 전쟁 등의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 궤를 같이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구조의 총체적 모순의 타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여성차별의 절실한 인식을 통해 차별하고 있는 자에게 차별받고 있는 자의 고통을 알리며, 나아가 생산과노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역사의 표면에 등장할수 있는 당위성과 앞으로 나아갈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Ⅱ. 여성 해방 논쟁

이 연구는 서로 연계된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왜 여성은 사회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차지해 왔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종속의 형태와 강도의 여러 변화들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문제들은 과거 수세기동안 주기적으로 나타났었고 최근의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더욱 체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성해방운동에는 보통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가지의 해석이 있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해방론자의 입장과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이다.

여성해방론자들에 의하면 어느 사회나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이 복종하는 체제라고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 형태, 즉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있어 왔다고 한다. 다른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주입되고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한가지 결정적인 점에서 다른 이데올로기와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사이의 생물학적 차이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경, 임신, 출산, 육아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예로 들면서 파이어스톤(S. Firestone)은 『경제적 계급과는 달리 성에 입각한 계급은 생물학적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게 창조되었지 동등하게 창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여성해방론자들의 분석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에서 남성지배와 여성지배의 원인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은 여성피지배의 원인을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잉여가치의 발견으로 보았다. 즉 사유재산의 현상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지배와 여성피지배의 여러형태는 바로 다양한 생산양식을 반영한다.

이분석은 여성의 억압이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을 가능하고 필요하도록 해준 사유재산의 축적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사유재산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될수록 여성은 더 많은 영역을 잃게 되었다.

부르조아여성들은 이 과정의 대표적 예이다. 사회적으로 그들의 역할은 남성의 재산을 물려받을 합법적 상속자를 낳는 것 뿐이다. 노동자계급의 여성들은 공장에 다니지않을 수 없게되면서 부터 여성해방의 역사에 커다란 진보를 이루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논리는 그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힘겨운 단계였지만 남성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참된 해방은 오직 자본주의의 극복과 사유재산제의 폐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반역사적 환상이거나 기껏해야 상부구조의 일부인것이다.

어떻게 생물학적 논의의 차원에서 상류층 여성과 마소나 등짐지는 동물에 지나지않을때도 있는 하류층 여성사이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할수 있겠는가? 마스크스주의자들에게있어서 이것은 그들이 극복하고자하는 계급의 문제이고 어려운차원의 문제이다.

여성해방론자들은 성별·계급제도가 동물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유재산제보다 앞선것이며, 사유재산제가 소멸되는날에도 성별계급제도는 여전히남아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성해방론자들의 견해는 여성과 남성사이의 생존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할수 없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는 계급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남성과 여성사이의 보편적인 지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는 결코 적당한 것이 못 되었다.

이 분석들은 서로 대립되면서 어떤 선택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두 견해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 현재에 있어서는 양극단의 논쟁을 거친 변증법적 통일에 의해 성별분업과 그것이 남녀의 권력관계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생산양식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회관계와의 상호관련성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Ⅲ. 자본주의와 여성노동

유물론적 관점에서 「여성문제」의 중심은 여성노동이며 여성노동에 대한 규명은 여성해방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여성노동은 여성이 담당하는 노동의 성격에 의해서도 밝혀질 수 있지만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조명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와 그속에서 관철되고 있는성별분업의논리를함께보아야한다는뜻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여성에게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회적 해방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성별분업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이용, 강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약간 수정되어있다.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노동연구는 풍부한 사상적 기반과 오랜 운동의 축적뒤에서 성숙하여 현재 제3세계에 강력한 이념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이념성과 역사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못하는 실천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은 선진자본주의가 고전적 의미의 자본주의화 과정을 걸어옴에 따라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니며 다른 제3세계국가를 수탈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내의 종주국 위치에 있기때문이다.

제3세계국가로부터의 막대한 잉여유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의 생활을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시켰고 또한 성차별적 모순도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완화돼 있다. 또한 계급내부의 다양한 계층의 존재는 인종·성·이주민등에 대한 차별정책에 의한 분절화현상을 낳아 계급내부의 통합력이 결여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계급갈등이나 계급의 실천성및 혁명성은 상당히 약해져 있다. 실제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내의 여성운동은 강한 이념성이 지향하는 체제변혁적운동은 미약하고 남성노동자와 얼마나 동등해지느냐하는 체제내적 여권운동만이 지배적이다.

Ⅳ. 제3세계의 여성문제

제3세계 여성노동연구의 과제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연구에서 나타난 강한 이념성과 제3세계의 경험적 특수성을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획득되는 성과를 접목시키는 작업이라고 볼수있다. 제3세계 여성노동연구는 「산업화 자체가 곧 발전이며,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상당히 천진난만한 기본적 도식에 대한 의문의 제기에서 출발 한다. 따라서 제3세계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와는 발전의 경로및 성격이 달라서 산업화 자체라기 보다는 종속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조직의 성격에 의해 여성노동이 규정된다고 보고 제3세계의 종속적 발전에 관련된 일반이론과 결합시켜 여성노동을 조명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제3세계 여성의 억압적인 현실의 본질적 원인을 세계자본주의체제와의 관계에서 조명해 볼 때 먼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전자본주의적 노동관계의 접합 유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전형적인 비(非)자본주의적 활동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전자본주의 노동관계의 접합은 여성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저개발사회구성체에서는 고도의 산업화된 사회구성체에서 보다 전자본주의 노동관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하여 선진국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주변에 위치한 전자본주의 지역과의 관계를 통하여 획득되는 이득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패권적 국가들과 주변부 국가들(marginal nations)에서 여성의 역할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명백히할필요가있다.

패권적 국가들은 경제적·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하므로 그 지역의 여성들은 자본주의적규범체계내에서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 선진국보다 덜 산업화된 지역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성들의 주변화가 가속화된다. 근본적으로 고도의 노동절약적 기술의 사용을 근거로하는 산업구조의 침투에 기인하여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인구는 감소하게되고 침체되며, 불안정한 저임금및 불안전 고용기회만을 제공하는 비공식부문에 집중되어 여성노동력의 주변화 현상이심화된다.

그렇다면 선진화된 자본주의사회의 경우는 어떠한가.

여성들이 상당한 수준으로자신들의 여건을 개선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남성들과의 전적인 평등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본주의하에서 여성해방의 한계는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자본의 존재에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사회구조의 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게 된다는 것인가? 여기서 모택동의 말을 인용하여 중공에 있어서의 여성의 위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시대는 달라도 남자와 여자는 형상이 같으며 남동지가 할수 있는 일이면 여동지도 역시 할수 있다』는 모택동의 주장은 일면 여성의 인간적인 해방과 사회해방의 양면성을 인정한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부녀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중요한 자원이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말은 여성인력을 전체주의 권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한듯한 느낌을 강하게■풍긴다.

이같은 느낌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제도적으로 남녀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확실한 사회의식에 기반을 두지 못한 채로 여성인력의 동원이 강요당했기 때문은 아닐까. 노동력을 단순히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한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아닐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느 하나만의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혁명은다른혁명의 실현으로써만이이루어질수있다는상황에처해있다고말할수있겠다.

Ⅴ. 한국적 상황에서의 여성운동

선진자본주의 사회및 제3세계의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는 그것이 성별분업과 차별적 저임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때문에 한국의 여성노동을 고찰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제3세계의 종속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노동문제, 여성노동의 성격등은 많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여성노동이 곧 제3세계적인 특징을 지닌다고는 할수없다. 그것은 일반적인 제3세계의 종속적 발전과는 상이한 발전경로및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여 일어난 급격한 계급분화와 함께 분단상황이라는 제약조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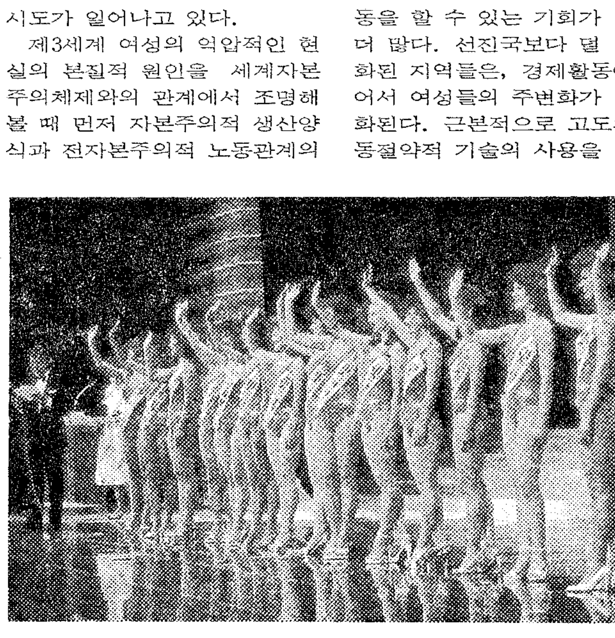
분단시대를 살고있는 여성들은 고조되는 전쟁의 위협이나 강압적인 가부장적 권력의 불안속에 있다. 가부장의 절대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가족법을개정하려는 여성들의 조직적 노력이나 가부장제 문화를 고발하여 비판하는 여성문화계의활동은 민족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이며 민주적 역량의 발휘로서 이들의 의지는 더욱 북돋아져야하며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분단상황하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및 문화적인 모든 제한성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하는 우리의 요구를 억압하며 해방되지못한 삶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사회의진보는 이룩될수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능력이 우리가 요구하는 평등하고자유스러운 사회를 스스로 창조하는데 발휘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자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은 분단을 극복하려는 공동의 노력에 남성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적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 형편에 적합한 방법이 창안될 수 있을것이다.

Ⅵ. 맺음말

차별을 차별로 느끼지 못하고 억압에 타협할 때, 이야말로 진정한 차별불감증으로 타협에 의한 억압의 체제가 정교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을 위한 노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아니 끝이 없는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는지도 모른다. 여성에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한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있을 수 없으며, 여성차별이라는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계속되어 온 가장 뿌리 깊은 차별을 조절하는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성해방에 대해 남자들지배하에 있는 매스컴의 허상에오염되지 않고 진정한여성해방가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직접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방은 어딘가 별난사람이 소란을 부리는 것이 아니며 여성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해방은 부엌에서 두서너명의여성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자기자신을 변혁하고 세계를 변혁하는 첫걸음이다.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성차별과 계층적 차별이 잔존하고 있다

수원 총학 재선에 부쳐

마당바위

김완태 <토목·3>

자치역량의 결집 절실

선배들이 의지의 댓가로 쟁취한 총학을 더럽힌 지난 선거를 각성, 철저한 대학의 양심 위에 재선이 치루어져야 하며 전 대학인의 참여 속에…

대학의 본질은 대학의 발생에서부터 여러 시대 다른 모습의 사회를 거쳐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고유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대학의 본질적 요소인 진리탐구는 사회적 변동상황에 따라서 대상을 달리한다. 그러나 불변으로 전제되어 있는것은 「대학의 양심」인 것이다. 어떤 시대 어느 곳에서건 대학은 시대의 거울이며 사회모순 지양집단체 역할로 순수함을 그 생명으로 삼아왔으며, 본질적인 이념에서 벗어나지않으려고 많은 선배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젊은날들을 동져야 했었다. 총학생회가 탄생된지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수원총학선거를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함 바로 그 자체이다.

『차례주는 밥상을 떠먹을줄 몰라서 차버리다니』『주는 떡도 먹지 못해서 썩히다니』이 구동성으로 나오는 소리이다. 왜 그런가? 이땅의 역사가 대변해주고 있듯이 한반도 역사속의 총학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위에 섰고 또한 총학을 지키려는 선배들의 피와 땀의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었던가. 근대사가 입증하듯 총학의 역사는 해방후 49년까지는학생회시대, 49~60년 사이엔 이승만정권하의 학도호국단시대, 60년 4·19로 학생회쟁취, 그뒤 5·16군사구데타로 박정권이 「재헌학생회」로 개편시도 실패, 75년 박정권의 논리는 학도호국단으로 둔갑되어 79년 10·26까지 긴급조치 시대를 맞이한다.

79년말에서 80년 5월까지 민주화의 열기로 총학생회 부활이 시도되었으나 5·17이후 학도호국단으로 다시 존속, 84년까지 지속되다 학우들의 무수한 투쟁의 성과로써 85년 총학생회는 탄생된 것이다. 총학생회 역사만 보더라도 부패한 정권일수록 총학을 어용화, 무력화 시키려는 정권의 논리가 이렇듯 끊임없이 시도되곤 했는데 작년의 수원총학선거는 학생들의 의식수준과 자치역량을 시궁창에 쳐박아 놓는 한심한 작태였으며 더 나아가 민주의 이념을 오도 시켰다.

특정후보간의 인신비방과 선전포스터 훼손, 폭력, 중선관위 무능력, 선거 보이콧트, 일방적 당선공고…. 그야말로 몰염치한 행위와 파렴치한 작태를 연출한 경희 역사상 최대의 흠이었다. 만약 86년 신입생들이 그 작태를 보았더라면 침묵으로 방조해준 선배를 어느 후배가 감히 떳떳이 선배라고 불러줄수 있을 것인가!

선거가 이렇게 까지 가게된 것을 단순히 후보자, 중선관위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모순되는 점이 많다. 경희가 어디 일개인의 것인가. 재고할 여지가 있는것이다. 선거무드가 무르익을 때 학우들은 어느 자리를 맴돌고 있었던가. 목이터져라 외쳐되던 후보자들의 유세를 들으려고 하지도않았지 않던가.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또 한 누구를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했었나.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이다.

지금도 수원총학재선이 치뤄지는 준비단계인 대의원총회마저 참여부족으로 무산의 연속이 돼오다 지난주에야 겨우 결성이 되었다. 한심한 자치역량으로 어찌 이땅의 민주화를 갈망할수 있단 말인가.

잘 운영되는 여타 대학의 총학생회 마저 욕되게 하지말자.

서울캠퍼스 총학은 의식수준이 월등한 사람만이 모여서 그런 참여의식속에 잘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조그만 참여의식과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할 대표자를 선출해야 겠다는 실천적 의지만 전제된다면 가능한일 일것이다. 힘겹게 대의원회가 구성되었다. 수원총학선거를 지켜보는 만8천여 경희의 눈이 있으며 선거에 참여하는 8천여 수원캠퍼스 학우들이 있다. 또한 경희 이념인 교훈의 뜻도 있다. 이젠 치졸한 장은 막을 내려야 할 때이다.

지금 어느 때인가? 누구나말할수 있는 현실인가. 『…』조국의 현실은 절박하게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청년학도의 피 끓는 용기를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늦게 행해지는 수원총학선거는 작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철저한 대학의 양심위에서 치뤄져야한다. 많은 학우의 참여속에 치루어 민족의 요구와 8천여 학우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

대학 양심의 논리에 맞지않는 그 모든것을 거부하며 전대학인의 참여와 다수지지로 총학선거를 치루어 내자. 떨어뜨렸던 수원캠퍼스학우의 명예와 더렵혀진 자존심을 닦아 세우자. 총학선거를 오도 시키고, 파괴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배격한 우리의 자치기구 총학생회를 만들자. 학우여! 경희의 역사에 다시는 이같은 과거가 없도록 항상 깨어있자.

총무처공고 제1호

1986년도 시험시행 계획공고

1686년도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행정, 외무, 기술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 무 처 장 관

1. 선발예정 인원

시험명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합계 : 3,135명)		
제28회 사법시험	300명		
제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40명		
제30회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 : 60명 재경 : 20명	교육 : 10명 사회 : 10명	100명
제20회 외무고등고시	20명		
제22회 기술고등고시	기계직(일반기계) : 5명 전기직(일반전기) : 5명 토목직(일반토목) : 10명 건축직 : 5명	통신기술직 : 5명 농림직(농업) : 5명 수산직(일반수산) : 5명	40명
7급 행정·공안직군및외무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 350명 외무행정직 : 25명 감사직 : 15명 세무직(내국세) : 40명	근로감독직(여자) : 10명 교정직 : 30명 출입국관리직 : 20명 전산직 : 20명	510명
7급 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기계직(일반기계) : 20명 전기직(일반전기) : 5명 건축직 : 5명	농림직(농업) : 20명 화공직(일반화공) : 5명	55명
9급 행정·공안직군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일반) : 450명 행정직(체신) : 700명 행정직(농수산) : 170명 세무직(내국세) : 120명	교정직 : 420명 보도직 : 20명 검찰사무직 : 80명 출입국관리직 : 70명	2,030명
9급 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기계직(일반기계) : 5명 전기직(일반전기) : 5명 토목직(일반토목) : 5명	건축직 : 5명 농림직(농업) : 20명	40명

※7급행정직은 지역별로 모집하고, 9급행정·세무·교정직은 지역별·성별로 모집하며 그 인원은 다음과 같음.

지역 \ 계급및 직군(렬)	7급 행정직	9급 행정직 일반부처 계	남	여	체신부 계	남	여	농수산부(통계사무소:남)	9급세무직 내국세 계	남	여	9급공안직 교정직 계	남	여
계	350	450	400	50	700	590	110	170	120	70	50	420	385	35
서울	280	80	70	10	220	190	30	—	60	35	25	75	60	15
인천·경기	10	60	55	5	60	50	10	30						
강원	5	50	45	5	60	50	10	15	10	5	5	30	25	5
충북	10	60	55	5	85	70	15	15	10	5	5	70	65	5
충남								20						
전북	15	70	60	10	80	70	10	20	10	5	5	20	20	—
전남					30	25	5	20						
대구·경북	10	50	45	5	75	60	15	20	15	10	5	170	160	10
부산·경남	15	60	55	5	80	65	15	25	15	10	5	50	50	—
제주	5	20	15	5	10	10	—	5	—	—	—	5	5	—

2.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제1차 필기시험(객관식)	제2차 필기시험(논문식)
사법시험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필수(6) : 헌법, 민법, 형법, 경제학개론, 문화사, 국사 선택(2) : (제1선택)국제법, 국제사법, 사회법, 형사정책(행형학포함),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법철학 (제2선택)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국민윤리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필수(5) : 국민윤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2) : (제1선택) 민법(신분법제외), 조사방법론, 심리학 (제2선택) 정책학개론, 지방행정(도시행정포함), 국제법
	재경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경제원론	필수(5) : 국민윤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재정학 선택(2) : (제1선택) 통계학, 회계학, 경영학 (제2선택) 경제정책, 상법, 화폐금융론
	교육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필수(5) : 국민윤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선택(2) : (제1선택)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제2선택) 사회교육학, 교육행정학, 교육과정
	사회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사회학개론	필수(5) : 국민윤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선택(2) : (제1선택) 사회심리학, 사회조사론, 사회문제론 (제2선택) 노동법,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포함), 사회복지론
외무고등고시		헌법, 정치학, 영어, 한국사, 문화사	필수(6) : 국민윤리, 영어, 국제법, 경제학(국제경제학포함), 국제정치학(외교사포함), 제2외국어(독어, 불어, 서반아어, 중국어, 노어, 말레—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일어중1과목) 선택(1) : 국제사법,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사회학, 재정학
기술고등고시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통신기술직 : 헌법, 물리학개론, 영어, 한국사 농림직(농업) : 헌법, 생물학개론, 영어, 한국사 수산직 : 헌법, 수산학개론, 영어, 한국사	기계직 : 필수(3) : 국민윤리,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선택(2) :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기계진동학, 동력학 전기직 : 필수(3) : 국민윤리,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선택(2) : 전기기기,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제어공학 토목직 : 필수(3) : 국민윤리, 응용역학, 측량학 선택(2) : 수리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역학, 토목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직 : 필수(3) : 국민윤리,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선택(2) : 건축계획, 구조역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건축재료, 도시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통신기술직 : 필수(3) : 국민윤리,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선택(2) : 전기통신법규, 전파법규, 전자공학, 통신공학, 디지탈공학 농림직(농업) : 필수(3) : 국민윤리, 재배학원론, 토양학 선택(2) : 수도작, 전작, 공예작물학, 농업경영학 수산직 : 필수(3) : 국민윤리, 수산생물학, 해양학 선택(2) : 수산증식학,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학
7급 행정·공안직군및외무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원론, 통계학, 회계학, 재정학, 독어, 불어, 일어 외무행정직 : 필수(6) : 문화사,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헌법, 행정법, 국제법 선택(1) : 경제원론, 외교사, 독어, 불어, 서반아어, 중국어, 노어, 아랍어 감사직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헌법, 행정법, 회계학 선택(1) : 재정학, 수학(Ⅰ, Ⅱ—1) 세무직(내국세)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헌법, 행정법, 회계학 선택(1) : 재정학, 경제원론 근로감독직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헌법, 행정법, 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포함), 형사소송법 선택(1) : 행정학, 경제원론, 심리학, 사회학, 민사법, 물리야금학, 기계설계,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공중보건학, 응용역학, 건축시공학 교정직 : 필수(8)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법학개론, 행정법, 행형학,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헌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선택(1) : 형사소송법, 행정학, 독어, 불어, 서반아어, 중국어 전산직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헌법, 행정법, 전산개론 선택(1) : 통계학, 수학(Ⅰ, Ⅱ—1)	
7급		기계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및국민윤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선택(1) :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전기직 : 필수(5) : 국어(한문포함), 국사및국민윤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